

충효동 요지(사적 제141호) 발굴조사 50년

국립광주박물관, 무등산 분청사기전 23일~10월13일

은암미술관, 분청사기 기획특별전 18일~8월1일

# 소박한 멋: 조선 美의 시작

## 분청사기

고려의 국운이 다하면서 비색 청자를 만들어 내던 도공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졌다. 그들 중 일부는 무등산 자락에 모여 새로운 가마를 열었다. 그리고 조선 초기 도공들은 청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낸 분청사기(紛青沙器)는 조선 '미'의 시작이었다.

청자가 태토(胎土)의 고운 입자만을 사용했던 것과 달리 분청사기는 태토를 그대로 썼다. 때문에 거친 표면을 감추기 위해 태토 위에 백토를 입혀 분장한 뒤 유약을 씌워 구워냈다. 분장회청사기(紛粧灰青沙器)라는 이름도 여기에 서 유래했다.

고려청자가 화려하고 귀족적인 느낌을 준다면 조선시대 분청사기는 소박한 멋이 특징이다. 투박한 형태가 오히려 더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도자기다.

광주시 북구 충효동은 15세기부터 16세기 초기까지 조선 최고의 분청사기 생산지가 됐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1963년 국립중앙박물관이 퇴적층과 도자기 파편들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를 통해 사적 141호로 지정됐으며 1991년 국립광주박물관이 본격적인 발굴 조사를 진행하면서 가마터 등을 발굴했다.

발견된 가마터는 길이 20m, 폭 1.5m 규모로 가마솥과 연통, 불을 지피는 화구 등이 완벽히

게 남아있었다. 당시 가마 굽뚝이 완벽하게 남은 상태로 발견된 최초 사례로 학계에 보고되기도 했다.

퇴적층에서는 다양한 장식 기법의 분청사기와 백자 등이 발견됐다. 20여종에 이르는 다양한 명문(銘文) 자기는 분청사기제작과 관련한 제작자나 납품 관서명, 제작시기를 밝힐 수 있는 우리나라 도자 역사의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았다. 학계에서는 "충효동이 분청사기를 거쳐 백자로 넘어가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다"고 표현했다. 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어존'이라는 한글이 새겨진 '분청사기 마상배'가 출토돼 당시 한글 사용의 실상을 보여줬다.

충효동 도자가 세상의 빛을 본지 반세기가 지났다. 광주 충효동 요지 발굴조사 50주년을 맞아 무등산 분청사기의 진가를 공개하는 전시와 작가들이 분청사기를 재해석한 전시가 따로 열린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오는 23일부터 10월13일 까지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광주 충효동 요지 발굴조사 50주년 기념 특별전 '무등산 분청사기'를 개최한다.

발굴조사 50주년을 맞아 그간 조사 성과를 집대성해 출토된 도자기들을 한자리에 소개하는 최초 전시다. '분청사기조화초화문병', '분청사기상감뇌문제기', '분청사기인화국문접시판' 등 모두 30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문의 062-570-7000.

(사)동아시아미술교류협회는 1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은암미술관에서 분청사기 기획 특별전 '분장의 멋과 향기'를 연다.

이번 전시에는 광주·전남지역에서 분청 작품을 만들고 있는 김광길, 김기찬, 김기현, 김순



1991년 국립광주박물관이 실시한 발굴조사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식, 김영설, 김옥수, 김치준, 남태윤, 명재현, 박주우, 변정옥, 송기진, 송정기, 이은석, 이치환, 조재호씨 등이 초대됐다. 상감·조화·박자·인화·귀얄·절화·덤벙 등 다양한 기법으로 제작하거나 창작한 작품 30점이 전시된다.

18일 오후 3시에는 '충효동 분청사기의 현황과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문화재청 박경자씨가 충효동 가마의 발굴경과와 분청사기의 다양한 기법, 현대적 계승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도자사를 연구한 일본인 키라 후미오씨가 '일본에서의 분청사기'를 주제로 일본에서 출토되는 분청사기의 이입시기와 경로에 대해 이야기한다.

오는 27일 오후 2시에는 작가들을 초대해 작품 제작과정을 보여주는 '분청사기 워크숍'이 진행된다. 문의 062-231-5299.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어존 글씨가 새겨져 있는 마상배(馬上杯)



## 화순고인돌유적지서 첫 온전한 형태 간돌검 발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순 고인돌유적지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형태의 간돌검(石劍·사진)이 출토됐다.

화순군은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소장 이영문)가 화순고인돌 유적군 가운데 하나인 감태비위 고인돌(사적 제410호)에 대해 최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무덤방에서 간돌검이 발굴됐다"고 17일 밝혔다.

돌검의 총길이는 12.5cm로 손잡이와 연결되는 부분 양쪽에 흠이 패여 있었다. 화순 고인돌 유적지에서 간돌검 손잡이가 발견된 적은 있으나, 형태가 온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돌검이 발굴된 고인돌은 제23호로, 그 덮개 아래에는 길이 133cm, 너비 46cm, 깊이 40cm 무덤방이 확인됐다. 무덤방은 납작한 돌을 세워 죽죽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남쪽은 넓고 북쪽이 좁은 두광족협(頭廣足狹) 형태였다.

발굴팀은 이와 함께 한쪽 벽석이 무너져 기울어진 상태로 발견된 24호 고인돌의 복원 작업도 완료했다. 복원된 고인돌은 길이 450cm, 너비 310cm, 두께 70cm, 무게 15t으로 덮개돌 밑에 양쪽 장벽석의 대형 판석 2매와 단벽석 1매가 고인돌 터식 고인돌과 흡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북아지석묘 연구소 관계자는 "간돌검이 발굴된 것은 고인돌 축조방식과 부장품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since 1982



##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 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 28석, 16석 룸완비)



구 분 영업시간 성인증 학생(어린이)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5~7세)  
평 일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토, 일, 공휴일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매콤한 오남자  
필리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오시는 길



봉골레  
Vongole  
Half ₩10,800  
Hot 스파이시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Half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 herb crispy chicken steak  
Half ₩10,800  
허니고르곤줄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